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에 대한 성명서

- 보완대책이나 예외조항 인정없이 획일적 적용을 반대한다
- 산부인과 거의 전 진료에 해당, 포괄수가제 폐해 고스란히 받아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포괄수가제도의 확대 시행에 대해 “적절한 분류체계 재정비, 충분한 수가 현실화 및 중증도에 대한 적절한 보완대책이나 예외조항 인정 없이 일률적으로 강제화하려는 포괄수가제도의 전 의료기관 당면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가 발표한 포괄수가제에 대한 입장이다.

----- 다 음 -----

○ 정부는 현재 선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도의 확대 시행이 “입원환자의 비용부담은 떨어뜨리고 의료진의 불필요한 검사·처치는 최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시행일정 등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내년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라며 2012년부터 전 의료기관에 강제적용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1.12.12. 기획재정부 2012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11.12.21 제4차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 및 11.12.26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대한병원협회는 2012년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물가인상에도 못 미치는 1.7%의 수가인상을 받아들이면서도 이의 부대조건으로 포괄수가제의 확대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관련 4개 진료과 학회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던 사안이다. 이에 대해 본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회원들의 깊은 유감의 정서와 항의의 뜻을 표한다.

○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적절한 분류체계 재정비, 충분한 수가 현실화 및 중증도에 대한 적절한 보완대책이나 예외조항 인정 없이 일률적으로 강제화하려는 포괄수가제도의 전 의료기관 당면 도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한 반대이사를 밝히는 바이다.

1. 진료행위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현행행위별 수가제가 이미 심각한 저수가 체제로 운영 되는 현실에서, 정부가 환자와 병원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진료방법과 진료비를 정해서 같은 비용만 지급하는 포괄수가제로 전환하여 강제 적용하려는 배경으로 ‘지속 가능한 의료보험 체계를 위해서라고 언급하는 것은, 노령화와 보장범위 확대에 따른 불가피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의 부담을 7개 질병군을 진료하는 4개과에게 전가시켜 지출을 줄이겠다는 비합리적인 의도이다.
2. 포괄수가제는 의료서비스의 획일적인 규격화를 초래하여 환자나 병원의 개별적 특성이 무시된 채 최소의 의료서비스만 공급하게 되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최신 의료기구나 기술의 도입을 가로 막아 의료의 발전을 저해한다. 이는 조기 퇴원의 증가 등으로 환자의 불만을 증가시킬 것이며, 국민들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어 결과적으로 심각한 국가적 불이익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3. 정부는 금번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제 시행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부당하고 불충분한 현 질병분류체계를 합리적·통합적으로 재정비하여야 하고, 진료행위의 난이도와 질병의 중

- 중도에 따른 예외조항 설정이나 보상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여야 한다. 그러한 당위성과 필요절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신의 국가적·공적 의무를 방기한 채 오로지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만을 목표로 성급하게 포괄수가제를 의무 적용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무리한 발상과 성급한 근시안적 정책의 추진은 진료의사들로 하여금 고위험 환자군의 진료를 꺼리게 만들 것이며, 합병증 발생 시 의료기관의 적절한 대처를 어렵게 하여 단기적으로는 관련 분야의 진료 환경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의학의 발전과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뿐이다.
4. 의료공급자와의 충분한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보건 의료미래위원회에 보고,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 올려 정책으로 결정하려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보는 불합리한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로 의료계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는 양질의 진료를 받을 마땅한 권리를 가진 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며, 의료의 발전을 저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의료계와 국민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5. 산부인과의 경우에는 7개 질병군 중 제왕절개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이 모두 포함되어 약성수술을 제외한 사실상 거의 전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의료 발전의 저해 등 여러 문제점을 감수하면서도 오로지 진료비 감축만을 위해 도입하려는 포괄수가제의 폐해를 산부인과의 왜곡적으로 편중되어 받게 됨을 의미한다.
 6. 현행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의 강제 시행에 앞서, 정부는 질병군 분류체계의 합리적인 재정비, 중증 및 복합질환에 대한 차등 수가의 현실화, 정기적인 조정 기전 규정화, 비급여 항목의 적절한 급여화나 예외 항목의 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적 및 법적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적정 보상이 가능한 새로운 포괄수가제 수가계약 및 심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가칭 ‘포괄수가제 평가연구팀’을 먼저 구성, 운영하여 산부인과 유관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이것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산부인과 관련 유관 단체는 산부인과 수술영역에의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에 참여할 수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2. 1. 3.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학회소식

제 46차 전공의 연수강좌 성료 (2011.12.11)

지난 12월 11일(목) 고려의대 구로병원 대강당(연구동 1층)에서 제 46차 전공의 연수강좌가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총 145명(전공의 124명, 전문의 21명)의 회원이 참석한 본 연수강좌는 Obstetric Ultrasound, Gynecologic Imaging, Pathology의 세 가지 세션으로 크게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인 Obstetric Ultrasound에서는 성균관의대 최석주 교수가 Review of Obstetric Ultrasound I (Head & neck, NT measurement, G-U tract, Ectopic pregnancy, Doppler & placenta), 울산의대 원혜성 교수가 Review of Obstetric Ultrasound II (Heart & thorax, G-I & skeletal system, Chromosomal abnormality syndromes)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였다. 두 번째 세션인 Gynecologic Imaging에서는 울산의대 최혁재 교수가 Imaging of Gynecologic Disease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였다. Pathology 세션에서는 충남의대 서광선 교수와 관동의대 홍성란 교수가 'Pathologic Review of Female Genital Tract Disease'이라는 주제로 강의하였으며 전공의는 물론 산부인과 전문의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제 2차 심사위원회

일시: 2011.12.19(월) 오후 6:30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의료사안 검토

제 2차 법제위원회

일시: 2011.12.26.(월) 오후 6:30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외

제 1차 유방진료위원회

일시: 2011.12.28.(수) 오후 6:30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제 5회 산부인과 의사를 위한 유방 및 갑상선질환 워크숍 프로그램 준비의 건

제 1차 개원특임위원회

일시: 2011.12.29.(목) 오후 7:30
장소: 팔래스호텔 3F (로즈룸)
안건: 요실금 고시 개정 관련, 의료분쟁조정법 경과보고

제 1차 초음파 급여화 대비 TFT 회의

일시: 2011.12.31.(토) 오전 9시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초음파 급여화 대비책 마련의 건

제 1차 의료분쟁조정법 TFT 회의

일시: 2012.1.6.(금) 오후 6:30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심사기준 관련 검토

제 2차 보험위원회

일시: 2012.1.11.(수) 오후 6:30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보험위원회 워크숍 준비

제 2차 개원특임위원회

일시: 2011.1.12.(목) 오후 7:30
장소: 팔래스호텔 12F (중식당)
안건: 초음파 급여화 진행사항 논의

보험소식

1. 초음파 급여화 대비 TFT 출범

2013년 보건복지부의 초음파 급여화를 대비하기 위한 대한산부인과학회 TFT가 구성되어 당면 현황을 타계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TFT위원장에게 이정재 교수(순천향의대)가 위촉되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본 TFT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되었다.

2. 포괄수가제도 TFT 출범

정부의 건강보험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입원환자 포괄수가제도의 단계적 적용 (2012년 의원 및 병원급)을 앞두고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포괄수가제도 TFT가 구성되었다. 포괄수가제도 TFT 위원장에 민응기 교수(동국의대)가 위촉되었으며 TFT 위원은 본학회 전체회원들께 공지하여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되었다.

3. 태반용수박리술 불합리 조항 개정 요청

현 건강보험 기준 중 [R4526 태반용수박리술 Manual Delivery of Placenta, 주: 다른 요양기관이나 자가 등에서 분만 후 이송되어 시행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관련한 조항의 불합리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기준부에 공문으로 질의하였다. 동 문서에서 (1) 현재의 기준은 용수박리술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는, 유착태반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시행되는 비정상적인 (병리적인) 분만과 정 중의 하나이므로 교과서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태반용수박리는 (2) R4376 분만 후 처치 행위정의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 조항은 불합리한 조항임을 설명하며 개선을 요청하였다.

행사소식

제 5회 산부인과 의사를 위한 유방 및 갑상선질환 워크숍

일자: 2012년 2월 19일(일)
장소: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지하1층 대강당

The 64th Annual Congress of JSOG

일자: 2012년 4월 13일(금) ~ 15일(일)
장소: Kobe Portopia Hotel & Kobe International Exhibition Hall
Kobe, Japan

The 51st Annual Conference of TAOG

일자: 2012년 3월 3일(토) ~ 4일(일)
장소: NTUH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Taipei, Taiwan